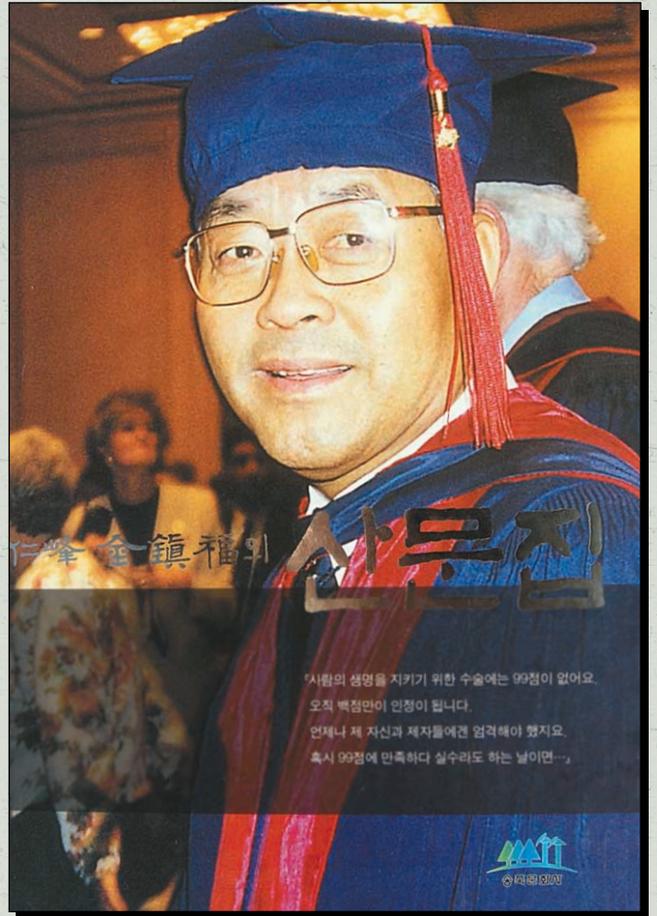


仁峰 金鎮福의 **외길**

나의 서툰 손안에 조그만 칼 하나가 쥐어졌습니다. 그 칼로 마음의 상처를  
도려내는 심의(心醫)가 되고자 했습니다. 그 소망은 50년을 넘도록 가고자  
했던 유일한 나의 길이었습니니다. 오늘 그리고, 내일도...



仁峰 金鎮福의 **산문집**

“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술에는 99점이 없어요.  
오직 백점만이 인정이 됩니다.  
언제나 제 자신과 제자들에겐 엄격해야 했지요.  
혹시 99점에 만족하다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...”



## 세계 최다 위암수술업적

글\_박택규 건국대 명예교수 tkp55@hanmail.net

**인** 봉(仁峰) 김진복(金鎮福) 교수의 회고록 『암치료와 연  
구에 바친 외길』이 출간되었다.

이 책은 학문과 예술의 외길 50년을 되돌아 본 『외길』과 에  
세이·산문·학회참가기 등을 모아 엮은 『산문집』 두 권으로  
구성돼 있다.

세계 최다의 위암수술기록 보유자, 천성이 부지런하고 몸  
에 밴 성실, 근면, 책임완수에 완벽주의자로서의 생활습관을  
고수하였던 저자의 삶은 우리 나라는 물론 세계의 현대의학  
사를 대변하고 있다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.

산문집에 실린 글을 보면 그의 인생철학을 엿볼 수 있고 이

웃에 대한 사랑도 확인할 수 있다.

“나의 서툰 손 안에 조그만 칼 하나가 쥐어졌습니다. 그 칼  
로 마음의 상처를 도려내는 심의(心醫)가 되고자 했습니다.  
그 소망은 50년을 넘도록 가고자 했던 유일한 나의 길이었습  
니다. 오늘 그리고, 내일도 ...”

한편 산문집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.

“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술에는 99점이 없어요. 오  
직 100점만이 인정이 됩니다. 언제나 제 자신과 제자들에겐  
엄격해야 했지요. 혹시 99점에 만족하다 실수라도 하는 날이  
면 ...” ㉔